내년 지역사랑상품권 3조 풀린다

행안부, '깡' 불가능 모바일 플랫폼 구축
추석 맞아 지자체별 최대 10% 싸게 판매

내년에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풀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위 '깡' 부정 유통이 막기 위한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도 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지역상품권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발행액의 4%는 국고로 보조한다.

내년 발행 목표는 3조원이다. 올해 발행 목표치인 2조3000억원보다 30.4%(7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올해 발행 목표치 역시 당초보다 15%(3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당초 2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늘렸다.

지난 7월 말 기준 1조2279억원이 발행돼 판매됐다. 목표치 대비 53.4%에 해당한다.

정부의 수요 조사에서는 올해 지자체 117곳이 총 3조3073억원을 발행 계획을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요청했었다.

정부는 또 국고를 지원받아 할인해서 파는 것을 악용해 소위 '상품권 깡'을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개발·도입한다.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 일련번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구매부터 사용, 환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타 지역 구매 대체 효과와 관광객의 지역 내 추가 구매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상품권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정 유통 문제가 발생하곤 하나 지자체의 경제 규모와 예산 등을 따져 발행액과 발행 방법 등을 정부가 제시할 계획은 없다"며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금화 시 부당이익이 커져 부정 유통 유인이 커지므로 지자체가 적정 할인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대책을 계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을 최대 10% 싸게 판매한다. 통상 5% 이내로 할인해 판매해왔다. /뉴시스

민주, 日 수출규제 대응책에 산업계 건의 적극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4대 기업 등 경제 싱크탱크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4대 대기업 싱크탱크와 중견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 등과 잇달아 만나 경청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국내·외 우수 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과 유연한 기업근로 환경 조성 건의에 대해서는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 연구소 연결 및 전문 인력 파견을 통해 수요기업의 연구인력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량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인력 공급 및 유연한 기업환경 조성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R&D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정책 이행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요청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종료되는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 상시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두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담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건의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협력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을 향후 5년간 100개 지정해 R&D, 특허 확보, 신뢰성 지원, 양산 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 정책실장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톨게이트 비정규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노조원들과 노동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도서지역 공영버스 설치 국가보조금 지원

정부, 국무회의서 확정… 대통령령안 7건 등 의결

정부가 대중교통 기반이 부족한 오지와 도서 지역에 공영버스를 설치하는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시의성 있는 정보 공시를 위해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공시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변경하고, 유치원의 원장명과 설립·경영자명 공시 횟수를 연 1회(4월)에서 연 2회(4월, 10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또 개정안 통과로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에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추가되고 연 1회(10월) 공시됨으로써 대학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뉴시스

문 대통령, 공직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요청

조국 등 6명 대상 "6일까지" 동남아 순방 마치고 이번주 중 후보자 임명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요청 대상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를 치르고 상임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돼 지난달 30일 이번 개각 대상자 중 유일하게 임명됐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6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순방에서 돌아와 이번 주 안에 6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이용호 의원, 지역구 현안 해결 노력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립 공공의대' 및 '지리산 친환경 열차' 추진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담당 부처 장·차관으로부터 적극적 예산반영 추진을 약속받았다.

이 의원은 당정 협의로 추진된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답보 상태인 현 상황을 지적하며, "당정협의로 제안하고 청와대가 나서 발표한 안인만큼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복지부 장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박능후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어 이 의원은 박선호 제1차관에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해 "알고 있으며 금년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실증화 R&D 사업 진행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철도기술연구원이 2013년도부터 5년여에 걸쳐 핵심기술을 개발했다"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만큼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남원시 대강면 하천 구역의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 조 장관의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이 '섬진강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원들 '애국펀드' 가입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의원들은 3일 애국펀드로 불리우고 있는 NH-아문디(Amundi) 필승 코리아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100% 민족자본의 농협이 취지에 동참해 300억원 가량의 초기 투자금액을 제공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보수의 50%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윤지홍 의장은 "최근 일본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응원하고자 펀드 가입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데 의정활동의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